
서 평

www.kci.go.kr

소메야 도모유키

『모험·음풍·괴이 - 동아시아 고전 소설의 세계』

김 시 덕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 저자와 책소개

이 글은 2012년에 일본의 국문학·국어학 전문 출판사인 가사마쇼인(笠間書院)에서 간행된 소메야 도모유키(染谷智幸)의 『모험·음풍·괴이 - 동아시아 고전 소설의 세계』(冒険・淫風・怪異 - 東アジア古典小説の世界)(2012, 340쪽, 2,800엔, ISBN 978-4-305-70591-4 C0095)에 대한 서평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저자에 대해 소개하고, 목차에 따라 책의 내용을 개괄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적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인 소메야 도모유키는 현재 이바라키 크리스티교 대학(茨城キリスト教大学) 문학부 교수이자 동 대학 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전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93)의 작품, 그리고 사이카쿠가 활동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한일 고전소설 비교론이다. 현재까지 출간한 단행본은 2권으로, 첫 작품은 『사이카쿠 소설론 - 대조적 구조와 “동아시아”로의 시계

(西鶴小説論—対照的構造と「東アジア」への視界)』(翰林書房, 2005)이다. 사이카쿠의 소설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첫 작품이라 한다면, 이 책은 첫 단행본 간행 이후 한국·중국·베트남·캄보디아·타이 등의 실지 조사와 문학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저자가 간여한 주요한 편저·기획으로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병설 교수와 함께 저명한 인문학 출판사인 펠리컨사에서 간행한 『한국의 고전소설』(韓國の古典小説(ペリ)かん社, 2008), 저자의 활동 거점 학회인 사이카쿠 연구회(西鶴研究会) 및 사이카쿠에 의해 시작된 소설장르인 우키요조시(浮世草子)를 연구하는 우키요조시 연구회에서 간행한 『사이카쿠와 우키요조시 연구 제4호 특집 (성애)(西鶴と浮世草子研究 第四号 特集 ‘性愛’)』(笠間書院, 2010), 그리고 지난 5월에 역시 인문학 전문출판사인 벤세이슛판(勉誠出版)에서 간행한 인문교양 잡지 『아시아 유학』 163호 『일본 근세문학과 조선』(日本近世文学と朝鮮(勉誠出版, 2013) 등이 있다. 『아시아 유학』 163호에는 1951년에 창립된 일본근세문학회의 첫 해외대회로서 2011년 가을에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추계대회에서 발표된 원고 및 필자를 비롯한 몇몇 관련 연구자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저자의 연구력을 통해, 일본 고전소설을 전공으로 했던 저자가 연구의 범위를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로 넓혀가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서는 그 중간보고서에 해당한다.

참고로, 정병설 교수와의 공편인 『한국의 고전소설』은 근현대 한국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사회에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고전 소설 20편에 대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 날)에 열린 ‘한일출판교류심포지엄 - 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문학번역 활성화 방안’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자 와타나베 나오키(渡辺直紀) 교수는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동향』(2005-2010)에서 『한국의 고전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한다.

고전문학 분야의 업적은 근현대 문학 분야에 비해서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최근에 중요한 업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중략) 소메야 토모유키 · 정병설 편 『한국의 고전소설』은 일본의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들(西岡健治, 山田恭子, 巖基珠, 野崎充彦, 染谷智幸)이 다 모여서 서울대 정병설 교수와 함께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의의를 검토한 좌담회와 대표 작품들의 개요를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다. 여기서 소개된 20개 작품들을 다 번역해서 간행하게 되면 이 책은 그 번역 선집의 해설에 해당되는 작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 : 동아시아 고전소설사는 가능한가 - 16·17세기의 아시아를 향하여

제1부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1.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마조(媽祖),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의 오토타치바나히메(弟橘媛)

제2부 모험

1. 영웅은 동아시아의 바다로 - 『수호전』의 송강에서 『진세쓰유미하리즈키』(椿説弓張月)의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까지
2. 대교류시대의 종언과 왜구의 성장 - 근세 어업의 성립과 사이카쿠(西鶴)의 『닛폰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

제3부 음풍

1) http://www.jpfc.go.jp/culture/new/sinjidai/dl/shuppan_kouryu_siryoshu.pdf

1. 기녀·기생·유녀 - 동아시아의 유녀와 유곽을 비교하다
2. 일본의 유녀·유곽과 “자유원만”(自由円満)한 세계 - 이하라 사이카쿠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을 중심으로
3. 오감(五感)의 해방구로서의 유곽 - 유곽의 “놀이”와 “문화”를 추구하여

제4부 괴이

1. 찢겨지는 호신부 - 『전등신화』의 동아시아 전파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2. 천하의 요충지라는 유토피아 - 『금오신화』의 세계

제5부 조선 고전소설의 세계

1. 열광의 리얼리즘 - 조선 고전소설의 세계, 그 배후에 있는 것
2. 『구운기』(九雲記)에 나타난 일본군과 동아시아 세계 - 『구운몽』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발문 고전소설과 근현대 소설의 가교 - 다시 동아시아를 향하여
동아시아 고전소설 관련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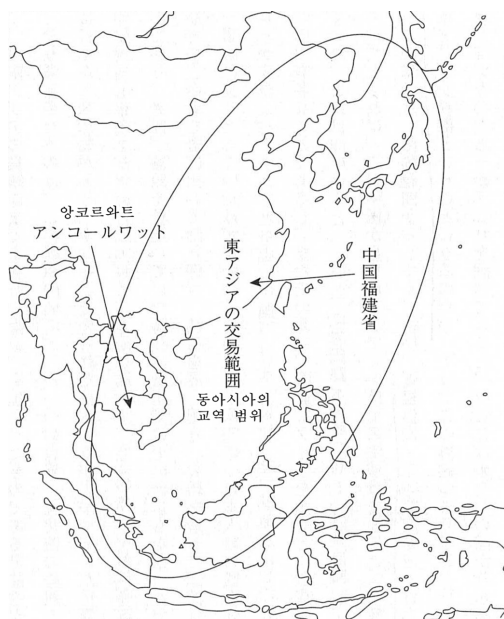
수록 논문 초출 일람

요약문(영어·한국어)

색인(인명·서명·작품명·사항)

“서론 : 동아시아 고전소설사는 가능한가 - 16·17세기의 아시아를 향하여”에서는, 현재 대립 양상을 보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역사적 인식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문학이라는 전제 하에, 16-17세기 소설의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고전소설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자의 주장이 개진된다. 그리고 저자는 이들 소설의 핵심적 테마가 ‘모험’, ‘음풍’, ‘괴이’라고 주장한다.

“제1부 동아시아란 무엇인가”에서는 저자의 활동 거점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있었던 미토번(水戸藩)의 2대 번주(藩主) 도쿠가와 미쓰쿠니(1628-1701)와 9대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1800-60)의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범주를 제시한다. 미쓰쿠니는 명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정성공



〈그림 1〉〈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일본인 마을〉 본서 35쪽
(삽화 속의 한글 캡션은 본 평자에 의한 것임. 이하 동일).

(鄭成功 : 1624-62)의 타이완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 망명한 주순수(朱舜水)를 받아들여 미토학(水戸学)이라는 학풍(學風)을 만들어낸다. 미쓰쿠니 당시는 동남아시아 각지와 일본간의 무역 관계가 아직 살아 있었으며, 타이의 일본인 마을(日本町)을 다스리던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 : 1590-1630)가 타이의 왕위 계승에 개입하다가 살해당하는 등, 수 십 만명의 일본인이 타이·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지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림 1>은 그 활동 범위를 제시한 것이며, 저자는 이 지도에서 원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동아시아”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미토번주 미쓰쿠니는 이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해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미토번의 해상무역 요충지에 바다의 여

신 마조의 신사를 세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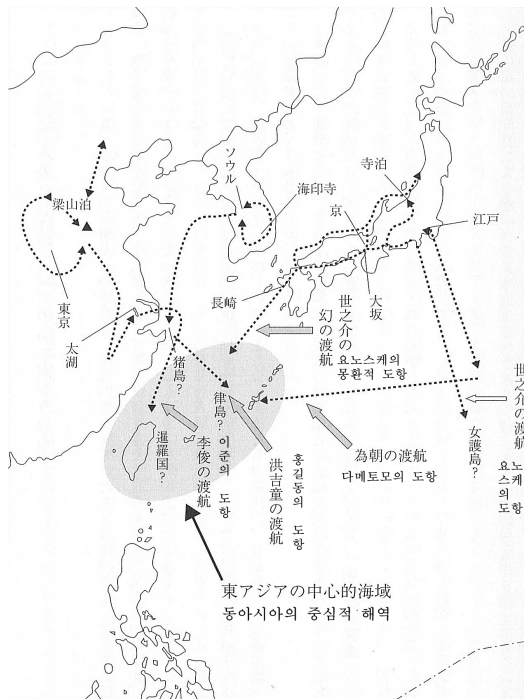
그런데, 19세기가 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열강이 일본으로 접근하면서 일본 내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자, 원래 망명 중국인 주순수의 영향으로 시작된 미토학에서도 내셔널리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미토번주인 나리아키는 외국의 신인 마조를 모시는 신사를 철거하고, 그 대신 일본 신화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바다의 신을 달랜 오토타치바나히메를 모셔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게 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상징하는 마조에서 일본의 바다를 지키는 오토타치바나히메로의 전환.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일본이 국제적 감각을 잃고 국수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다음으로 “제2부 모험”에서는 중세에 동중국해를 무대로 하여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왜구의 활동 역시 활발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이들 해상 세력의 활동이 소멸되자, 이들 해상 세력에 대한 동경을 동력으로 하여 동중국해를 무대로 하는 소설이 동아시아 각 언어권에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는 소설을 중국 4대 기서 가운데 하나인 『수호전』으로 설정한다. 물론 『수호전』은 바다가 아닌 호수가 배경이기 때문에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비논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저자는,

해적을 제재로 해버리면 특히 왜구의 피해가 심했던 해안부의 남경·영파·항주 등의 시민에게는 공포심을 주게 될 뿐, 『수호전』이 지향하는 의적으로서의 도적 이야기가 될 수는 없었을 터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양산박이라는 『수호전』의 유포피아는 해양의 모험담을 내륙으로 옮겨 온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방금 서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 『수호전』에서는 수군이 다수 활동한다. 더욱이 그 수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이준은 113~119회에서

도적 정신을 잃어버린 두령 송강에게 질려서, 병을 핑계대고 동위 · 동맹 등과 함께 양산박군을 이탈, 그대로 남해로 출항하여 섬라(삼단 오늘날의 타이를 가리키는 섬이 아니라 타이완 부근의 여러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왕이 되었다(63-64쪽).

라고 지적한다. <그림 2>는 홍길동 등 한중일 삼국에서 동중국해를 무대로 집필된 모험 소설 속 주인공들의 활동 영역을 보여준다. 또한, 『금병매』와 같이 요노스케라는 남자 주인공이 성(性)의 모험(저자는 이를 “내면의 모험”(innertrip)이라 부른다) 끝에 여자만 산다는 노고가시마(女



<그림 2> 『수호전』~『진세쓰 유미하리즈키』의 작품 세계와 동아시아의 해역. 본서 79쪽.

護島)로 떠난다는 내용의 사이카쿠의 출세작 『호색일대담』과, 중세에 해상 활동을 하던 주인공이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든 근세에 자신의 실력을 어업 기술의 개발로 전환시켜 성공을 거둔 에피소드를 포함한 사이카쿠의 소설 『닛폰에이타이쿠라』를 예로 들어, 이들 작품이 『수호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세에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일본인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놓여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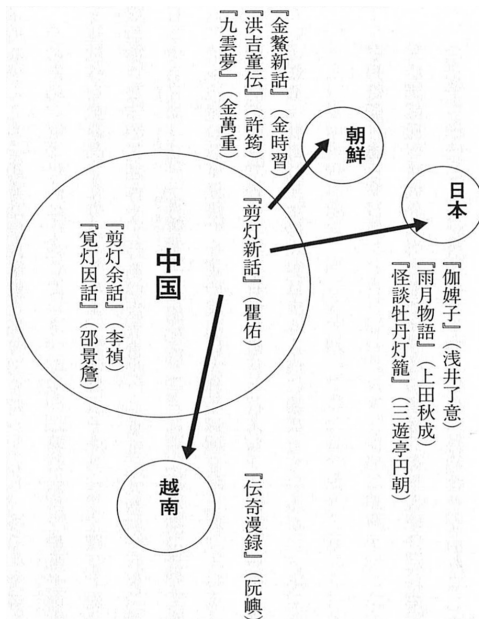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3부 음풍”에서는 성(性)을 상품으로 하는 유녀의 세계를 이상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으며 그 세계가 냉혹한 질서 위에 성립되어 있었음을 우선 신중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녀와 유곽이 수많은 문화를 산출하였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유녀와 유곽에 대해 생각할 때 증시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앞 장 「일본의 유녀·유곽과 “자유원만”(自由圓滿)한 세계」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유곽의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략) 또 하나는, 이러한 유녀·유곽의 세계 특히 에도시대 이전의 세계가 수많은 양질의 문화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요한 호이징가의 『호모 루덴스』를 인용할 것도 없이, 문화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놀이나 여유가 존재해야 한다. 지옥처럼 가혹한 세계에서 양질의 문화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이카쿠의 호색물(好色物)에 실린 유녀·유곽의 묘사를 한 번만 읽어보기를 바란다. 거기에 지옥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그렇다고 해서 물론 극락이라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인간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유녀나 유객(遊客)이 펼치는 세계 속에서 눈부실 정도로 다양한 “놀이”와 “문화”가 명멸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터이다(161-162쪽).

저자는 사이카쿠의 소설과 17세기 일본의 각종 유곽 안내서를 인용하

여, 유녀와 유객이 “금전에 대한 신뢰와 기피”(159쪽)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통해 전근대 사회를 지배한 질서인 계급을 초월하여 돈 앞에 평등한 인간관계라는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음을 강조한다.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계급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는 공간인 유곽. 그 안에서 17세기 일본인은 잠시나마 “자유원만”함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4부 괴이”에서는 『전등신화』 및 동아시아 각국의 영향작을 개설하고, 특히 『전등신화』에 포함된 여러 단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모란등기』(牡丹燈記) 계열의 작품들을 비교하여 각국의 특성을 지적한다. 저자는 특히 김만중의 『구운몽』 가운데 『모란등기』의 영향을 받은 대목을 지적하며, 다른 나라의 영향작에서와는 달리 『구운몽』에



〈그림 3〉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문학작품. 본서 191쪽.

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혼령을 퇴치하는 부적을 찢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 대목을 “당시의 귀족 특히 양반의 부녀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무당 세계를 부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무당에 의존하지 않고 애정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자”(206쪽)한 김만중의 의도라고 파악한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저명한 성리학자인 하야시 라잔(林羅山)조차 『괴담전서』(怪談全書), 『본조신사고』(本朝神社考)와 같은 저술을 남겼음을 지적하며, 근세 일본사회에서는 유학의 영향이 국부적(局部的)이었다고 주장한다(215쪽). 저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 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며, 동아시아 삼국(한중일) 한자·유교 문화권으로서 동일선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한 한국·중국 학계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다음으로 “제5부 조선 고전소설의 세계”에서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리고 김만중의 『구운몽』을 확대 변형한 이본(異本) 『구운기』(九雲記)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2~4부와는 다소 구분되며,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에 집필된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조선시대 소설의 특성을 일본인 독자 들에게 소개하고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본서에 대한 평가와 문제 제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아시아” 연구를 표방하는 일본의 기존 연구 경향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다음 대목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아시아”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가·민족을 초월하여 연구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량이 많다거나 넓다거나 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를 표방한 일본의 연구서 가운데, 시야는 동아시아로 넓혔지만 일본 연구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광범위하게 동아시아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그 영향이나 동시대성을 논하고는 있지만, 일본을 상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연구와 동일해져 버린다. 유감스럽지만 이를 동아시아 연구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물론 그것은 우리 모두 빠지기 쉬운 함정이며 이 책도 그러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본 연구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히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본 밖으로 나가 자국·자민족의 틀을 넘어 타국·타민족의 관점에서 서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그것도 일면(一面)에 지나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국과 타국, 자민족과 타민족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듯이 “각각의 유니크함을 주장하는 것”(『일본정신분석』 『일본정신분석』 고단샤, 2007)에 그치면 안된다.

요컨대 자기 중심의 유니크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국이나 타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타를 파악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시점을 구축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또 오리엔탈리즘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비교문화·비교문학 연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서 찾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상대적인 시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기에서 과도한 기대가 생겨나서 상대를 이상화하고 자신을 왜소화해버릴 위험을 늘 동반한다. 그러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동아시아”의 관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본서 219-220쪽)

자국 문화·문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동아시아” 연구에 적용한다거나, 자국·자민족과 타국·타민족의 차이와 개개의 독창성을 발견하고자하는 경향은 비단 일본 문학·문화 연구자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현재 여전히 네이션 스테이트(nation-state :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 형성이 진행중인 동아시아 각국의 학계는, 과연 “유럽”이라는 관점으로 유럽 각국을 포섭하는 연구가 일반화된 서구 학계와 같이 “동아시아” 연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동아시아” 연구라는 미명하에 자국 중심적 관점을 확장할 뿐이거나, 자국 학계의 필요에 맞추어 “동아시아”를 상상적으로 호출하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이 책은 현재 동아시아 각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필자가 아는 한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 오타나 모리시게(大谷森繁) 교수 등에 이어서 한국 고전 소설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진 일본인 연구자인 저자의 통찰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동아시아” 담론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가? 필자는 이 책에 대해 올해 초에 일본의 학술지 『일본문학』(日本文学)에 서평을 게재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설정한 “동아시아”라는 범주가 일본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저자가 설정한 “동아시아”의 범주는 <그림 1>에 수록한 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범주는 한국·중국·일본·타이완의 4개국 정도를 “동아시아”로 간주하는 한국측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 이에 대해 필자가 비판한 부분을 여기에 일부 인용한다.

현재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그 용어가 포괄한다고 간주되는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저자는 미토번의 해양 활동을 논하는 가운데 “마조 신앙, 주인선(朱印船) 교역 지역, 일본인 마을의 범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권에 해당한다”(36쪽)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중세에서 근대에 걸친 일본의 대외교역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한국·중국·북한·타이완 등,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 포함되는 여러 지역이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에서 전개되는 “동아시아” 담론의 배경에는 저자가 속하는 일본이라는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²⁾

“동아시아”의 개념이 일본인의 역사적 활동 영역을 모두 포괄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답습하는 일본 학계의 경향을 비판하지만, 저자 역시 일본(인)이라는 “자국 · 자민족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책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현상을 다소 도식적으로 유형화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제3부 음풍”에서는 저자의 주요 연구 대상 시기인 16-17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과 에도시대 일본의 유녀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된 특성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유형화를 시도한다(127-132쪽). 물론 저자 스스로도 이러한 유형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동아시아 고전 소설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였던만큼 이 책에서는 다소 기계적인 유형화 작업이 산견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정치한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적인 본론 부분인 “제2부 모험”, “제3부 음풍”, “제4부 괴이”는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5부 조선 고전 소설의 세계”는 2·3·4부와는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이상과 같이 이 책에는 비판되어야 할 성근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히 저자가 속한 일본학계가 정치(精緻)하고 일국적(一國的)인 연구에 매몰되거나 중국과의 비교만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 · 문화론을 전개해온

2) 『『冒険・淫風・怪談 東アジア古典小説の世界』書評』 『日本文學』 62 (日本文學協會, 2013-2) 98쪽.

경향이 있음이 분명한 만큼, 이 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자 보편적인 동아시아 문학·문화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론(試論)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저자가 제시한 매력적인 가설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거나 확장시키는 것은 저자 자신과 후속 연구자들의 몫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 책의 성격을 “위대한 암중모색의 중간 보고서”라고 판단하였다.